

[피살 충격...인질사태 새 국면]

탈레반 '맞교환' 압박...정부 대응 딜레마

납치단체간 갈등, 석방 교섭중 살해 자행한 듯 정부 "더 이상 희생 안된다" 직접 협상 등 검토

■ 살해 배경과 협상 전망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에 의한 한국인 피랍 7일째인 25일 피랍자 23명 중 1명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2004년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무참히 살해된 김선일씨 사건의 기억이 뇌리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또 한번 비극적인 해외 테러 피해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 왜 살해했나=피랍자 8명을 석방하는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1명을 살해한 이유와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탈레반 측은 23명의 피랍자를 여러 장소에 분산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터에 탈레반 조직내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질 8명과 탈레반 수감자 8명을 맞바꾸는 교섭도 난항을 겪자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에서는 인질을 죽이는 상호 모순된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쪽에서는 탈레반 측이 한국 및 아프간 정부가 현 상태에서 수감자 석방 등 요구를 들어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벼랑 끝 전술을 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정부 대응 논란일듯=인질 1명이 결국 사망한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석방 교섭 초기부터 "납치 단체와 직·간접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탈레반 측의 입장과 요구 등을 참고만 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측과의 대화에 간접 참여하는 형태로 관여하며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하는 한편 탈레반 측의 정확한 요구를 직접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기조였던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탈레반 측이 몇 일간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시간이 되기 전 '그 시간 이후에도 탈레반 측과의 접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결국 인질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정부 대응 전략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평가대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 극단 상황에 놓인 양측=어떤 선택할까=남은

인질 석방 교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원 무사석방을 목표로 했던 우리 정부는 더욱 어려운 결단의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탈레반이 주장하는 시한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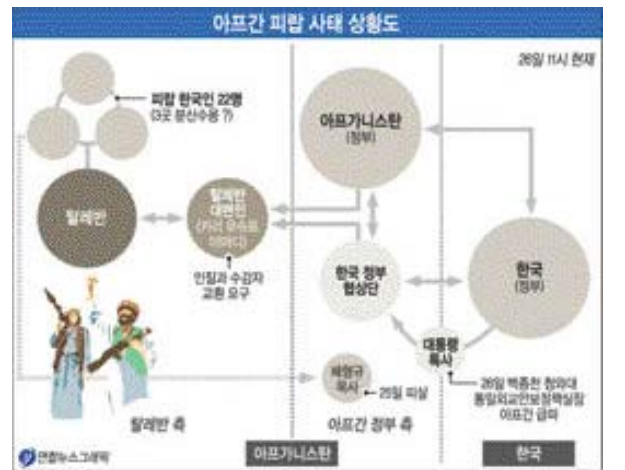
일단 한국이나 아프간 정부로서는 탈레반 측이 인질 살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가며 압박을 가해 오는 상황에서 저들의 요구에 수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미 인질 한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한·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인질 전원 구출이라는 목표로 달성하지 못하고 테러세력에 굴복해선 안된다는 명분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남은 22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채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감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프간 정부와 현지 원로 등을 내세운 간접 협상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이 전격 전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러 정황상 탈레반 측의 요구는 수감자 석방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미 울들어 이탈리아 기자 석방 교섭때 한 차례 인질-탈레반 죄수 교환에 응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봉착했던 아프간 정부가 맞교환에 응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대통령 불면의 밤

카르자이 대통령과 통화...비통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무장단체의 인질 살해로 중대 국면에 접어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인 인질 1명이 탈레반의 총격에 희생됐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26일 새벽까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수시로 상황보고를 받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긴장이 최고조에 오른 것은 25일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탈레반이 한국인 남성 인질 1명을 사살했다"는 잇단 외신 보도로 인해 협상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하던 상황이 급변한 때 다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밤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백중현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아프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했고, 백 실장은 회의 직후 그 결과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노 대통령은 26일 새벽 0시55분부터 20여분간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카르자이 대통령과 한국인 피랍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통화가 끝난 직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1차 보고를 접하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새벽 5시 다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 인질 1명의 피살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급박한 상황 전개에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다시피한 노 대통령은 이날 이른 새벽에 기상한 후 희생자의 신원이 아프간 봉사단을 인솔한 배정규 목사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안보정책조정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아프간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탈레반에 의해 사살당한 한국인 인질 배정규씨의 시신을 25일 밤 트럭에 실은 채 옮기고 있다. 배씨의 유해는 인근 미군 기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방요구 수감자는 알카에다 조직원

탈레반, 거부 당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이 한국인 인질과 맞교환 대상으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조직원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아프간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아프간 당국자의 말을 인용,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탈레반은 수감 중인 알-카에다 조직원 이외에 아프간 주둔 미군에 체포된 탈레반 조직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신문은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이 석방을 요구한 인물들에 대해 "관할 밖"이라는 이유를 들어 석방을 거부했다고 전하면서 알-카에다 조직원의 국적

과 지위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프간 정부는 그러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석방 요구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NHK방송도 이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교섭 책임자가 수감 중인 간부들의 석방하는 탈레반 측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책임자는 탈레반 측이 3개 그룹으로 나뉘져 행동하고 있으며 22명의 한국인 인질도 나뉘져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3개 그룹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각각 다른 요구를 하고 있어 그만큼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프간 정계, 몸값 지불에 부정적

"특공대 보내라"

아프가니스탄 정치권이 탈레반에 붙잡혀 있는 한국인 인질 석방의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는데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 판이 26일 보도했다.

아프간 정치권의 이러한 입장은 납치범이 탈레반 죄수와 인질의 맞교환과 함께 몸값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석방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문에 따르면 남부 로가르 주(州) 출신 알리 무함마드 의원은 "탈레반이 몸값으로 받은 돈으로 무기과 탄약을 구입, 아프간 정부군과 다국적군을 공

격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느냐"며 "탈레반에 돈을 건네면 우리가 이들의 투쟁, 전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인질들이 억류돼 있는 가즈니 주 인근 자발 주 출신의 하미둘라 투기 의원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탈레반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고 몸값 지불에 강력 반대했다.

그는 이어 "아프간 정부가 약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충분한 자원을 가진 평화유지군(ISAF)이 특공대를 이 지역에 보낸다면 아프간 역사상 여성을 결코 살해하지 않은 탈레반은 그냥 도망치고 말 것"이라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백중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한국인 인질 1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광주 독자를 위한

능인선원 지광 스님 <정진> 출간 기념 사인회

7월 28일(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송정서민

원자사 초청 명회

30년을 환생관이 아이중 새배가노려 성행!
타월내 국내 최대의 도움 사자를 읽으면 불교계의 신화.